

전일동향

전일 대비 12.90원 하락한 1,504.3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20원 하락한 1,515.0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다가서는 기류가 환율을 하락세로 이끌며, 전일 대비 12.90원 하락한 1,504.3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2.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1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15.00	1516.00	1503.70	1504.30	1507.90
	엔화	954.53	955.04	943.13	944.15	-
	유로화	1766.32	1766.78	1746.50	1749.18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1	-3.35	-7.73	-15.52
	결제환율(수입)	-0.1	-2.13	-5.59	-12.0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종전 불확실성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4.30) 대비 3.35원 상승한 1,506.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으로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양국 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로 환율이 전일 낙폭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결제 수요의 유입 또한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일 환율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발 위험선호 심리 회복은 금일 국내 증시 상승과 외국인 순매수 연장으로 이어지며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0.50 ~ 1511.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20.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35원 ↑
	■ 美 다우지수 : 50461.68, -118.02p(-0.2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7.2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647 억원